

주일 예배 11시

2017년 8월 13일 (둘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놀라운 그 이름(619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49번 다 함께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302장) 다 함께

기도 김영자 권사

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347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은혜 받은 자의 태도(사무엘하 9장 5절 -8절)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486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학교가 10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시편 100-106, 마가복음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5.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음의 귀중성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깨어있음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깨어있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라도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안에 자리 잡고, 내 주님을 내 주님처럼 바라보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이 되어주지 못하실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답게, 그리고 순간순간 새롭게 붙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언제나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축복된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 장의 이 짙막한 말씀을 바꾸어 말해본다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심장의 방패로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과 부딪치기 쉬운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믿음과 사랑의 흥배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심장은 주님 의지하는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이 자유로움 속에 거할지언정,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할 줄 압니다.

또 한편,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생각은 얼마나 번거롭고 어지럽기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된답니다. 이곳에서 흥배나 투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결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갑옷들 위에 싸우는 방패로서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배명자

주님 보좌 가까운 곳
땅 끝에, 빈들에, 산봉 위에 서서
무릎으로 바라보는 주님은
뜨거웁입니다. 강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에서 일어서서
주님만 내 사랑으로
주님만 내 생명으로 붙든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들려오는
세미한 그 음성 놓칠까 봐
자기는 거절하고
근신의 옷을 입고
사권의 등불을 밝힙니다.

내 사랑! 내 생명!!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
꺼트리지 않기 위해
비천한 나를 쳐서
시온산성
추구의 산에 오르기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내 작은 마음에 붙들려 주시는 주님!!
주님 한분을 내 사랑으로
내 생명으로 붙들어 가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내 인생길에서

내 사랑! 내 생명!!
주님을 위하여 일어난
좋은 군사의 삶은
귀 뚫은 종의 삶은
주님의 돕는 자의 삶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사랑! 내 생명 되신 주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8월 13일(33주) 31권-33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